

투데이칼럼

범상치 않은 산 이름을 품고 있는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평균 해발이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장수군이다.

몇 해 전만 해도 4월까지 눈이 평평 내린 곳으로, 산에 안긴 듯 둘러싸인 분지이다.

천혜의 백두대간(장수 덕유산)을 필두로 금남호남정맥(팔공산)의 산줄기가 사방을 둘러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던 장수 분지와 장계 분지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산악지형이다. 최근 장수군은 산악마라톤의 성지이자 겨울스포츠 산업의 으뜸인 프랑스 샤모니 동불랑을 벤치마킹해 한국의 샤모니를 꿈꾸고 있다.

또한 전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지역인 점을 특화 전략으로 풍부한 산림자원 활용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동부지역 산림관광 명품화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산악지역인 장수군에는 특히 이름난 산들이 즐비하다.

우선 장안산(長安山)은 백두대간 영취산 산줄기에서 뻗어 내



송 주 섭

장수 부군수

린 우리나라 8대 종산, 가을 역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중국 한나라의 수도로 유명한 장안과 그 이름이 같다.

장안은 알려진 바와 같이 “수도 서울”을 의미해 “장안에 화제”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혹자는 장안산이라는 산 이름이 붙은 것만으로도 그 위상과 역사성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또 영취산과 법화산은 모두 불교와 관련 있는 산 이름이다. 영취산의 경우 인도에 자리한 석가모니의 설법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법화산은 불교 경전인 법화경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외에도 장수읍에 팔공산과 봉황산 등이 자리하고 있는데, 팔공산의 경우 8개의 공공목적의 장소(공기관 등)가 있어 불여진 이름으로 추정되며, 봉황산의 경우 봉황 자체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봉황산자락에 자리한 마을 이름도 왕대마을이다.

이처럼 장수지역의 산 이름은 모두가 범상치 않다.

예사롭지 않은 산 이름을 볼 때 장수군의 옛 모습이 궁금해진다. 비록 역사 기록 속에 포함되지 못해 소외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장수의 역사성과 지역성은 묻히지 않고 그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 꼼부림치고 있다.

최근 고대사회에서 ‘장수’는 백제의 변방이 아니라 삼국의 각축장이자 격전지로 새롭게 역사가 쓰이고 있으며, 가야의 소국 중 하나로 장수 지역에 마지막 국명(國名)을 남긴 중요한 지역으로 재조명되는 곳이다.

필자는 옛 모습을 통해 앞날을 꿈꾸고 실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이름난 산들에서 오는 4월 장수 트레일레이스 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향후 장수에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정원 조성, 동서화합 육십령 가이아이터 조성, 누리파크 100만 관광객 유치 등 많은 국제 산악관광도시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장수군에 자리한 ‘범상치 않은 산 이름에 걸맞게 옛 모습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천혜의 산악 자원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를 꿈꾸며 글을 마무리 한다.

사설

도박 사이트 조직 무더기 검거

5천억 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 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중학생 세 명은 홍보 역할로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로 5백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한 아파트에 경찰이 들이닥쳐 자금을 관리하던 총괄실장 등을 체포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여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 다섯 곳을 운영한 40대 국내 총책 등 3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총책 등 10명이 구속됐다. 도박 사이트 회원은 1만5천여 명에 이르고 판돈 규모는 5천억 대에 이를 정도다. 특히 이번엔 검거된 도박 운영 조직 가운데는 10대 청소년도 12명이나 포함됐다.

일당에 포함된 중학생 세 명은 SNS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 친구 사이인 중학생들은 한 명이 총판, 나머지 두 명이 부총판

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동안 5백여 명을 도박 사이트에 새로 유입시켜 한 사람에 2백만 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총책 등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시청자인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총판 역할을 제안했다.

경찰은 일당 중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두바이로 옮겨 다니며 사이트를 운영한 해외 총책 등 9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그리고 범죄수익금 83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무엇보다 도박 사이트에 가입할 때 미성년자인지 묻는 절차는 없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 사이트 일당파진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유예

KBS가 2024년 2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KBS 관계자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왔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분리 징수가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KBS는 전날 관련 부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당분간 기존과 같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전기요금 납부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도 함께 징수해왔다.

그러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수신료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비 부과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요금에서 분리된 수신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계속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분리 고지 유예는 협상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사이에

남부 대항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이 새롭게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항목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지 않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문제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전기요금과 통합해서 징수했던 수신료는 앞으로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2023년 지난해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KBS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충원하고 한전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수신료 징수 방안을 협의해왔다.

한편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각 가구는 한국전력에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2천500원)를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총정의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30여 년 간 전기요금과 함께 한전이 통합 징수해 왔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스페인 해변 누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17일(현지시각) 스페인 북부 산체바스티안의 라 폰차 해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팔레스타인 깃발을 몸에 두른 채 바위에 누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항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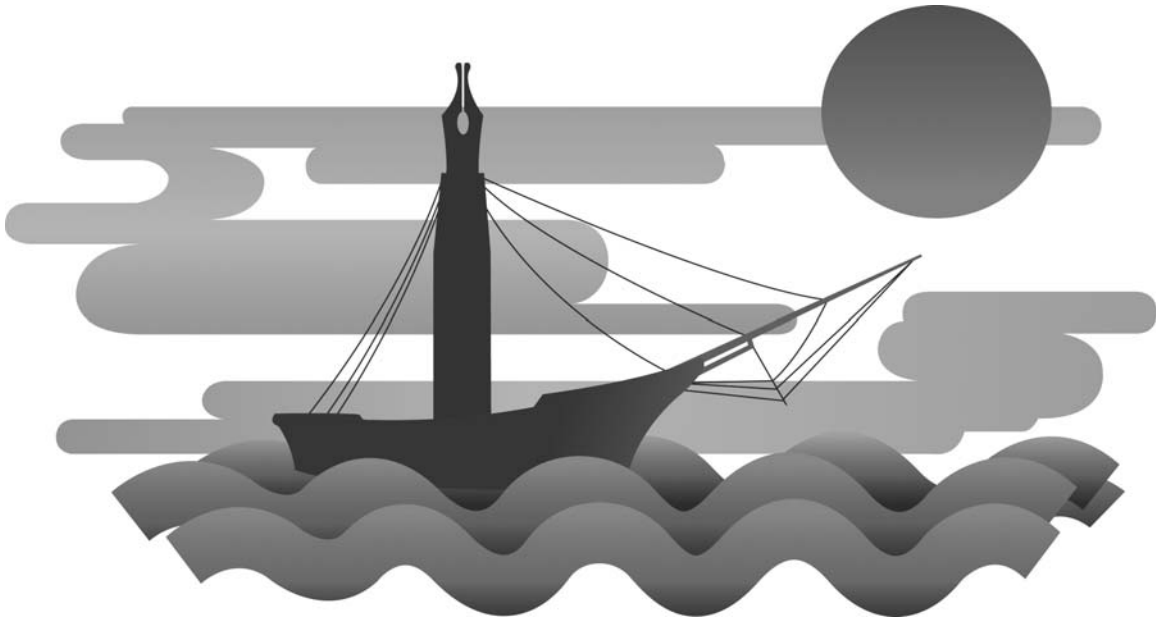
성 패트릭의 날, 퍼레이드 구경하는 사람들



17일(현지시각)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성 패트릭의 날 기념 행진이 열려 녹색 옷을 입은 시민들이 퍼레이드를 보면서 환호하고 있다. 성 패트릭의 날 축제는 아일랜드 기독교를 전파한 패트릭 성인을 기념하는 것으로 매년 3월 17일에 열린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